

韓廷玉氏의 『神卽社會禮』論에 對한 一考(三)

鄭景玉

氏의 『社會를 떠난 孤獨한 個人生活』이란 아마도 原始的 『으라빈손 크루소』를 想像하신 모양이다. 그러나 萬一 그러한 怪物이 잇섯다면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보다 獰狼의 『타□라 으라사』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겟다. 氏의 『個人生活』이란 말을 사람이 自然環境을 對할때의 生活狀□狀況을 가라친 것이라고 解釋한다고 하자. 여기에 사람과는 도모지 接觸하여 보지 못한 怪物이 하늘에서 쭉 썰러져 가지고 自己를 들너싸고 잇는 自然環境을 對하얏다고 하는 神話가튼것을 想像하여 보자. 이 怪物이 自然에 對한 恐怖心이 이러나고, 여러 가지 神奇한것을 볼 새에 好奇心을 늦기고 食物을 求할때에 증생과 곡식을 重要하게 생각하고 비와 번개를 무서워하여서 自然가운데 超自然的 勢力이 있다는 것을 늦기고 □術的 方法으로 이 超自然的 勢力을 應用하여서 편이 먹고 안심하고 잠잘 잘만한 神秘的 手段을 □다면 왜 이것을 宗教라고 하지 아니 할가. 勿論 □術과 宗教를 嚴密하게 區分하고 『宗教』란 말을 □意로 解釋하여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關係만을 일음이라고 하면 그것이야 自己멋이겟지마는 氏가 말한 대로 『自然環境에 對한 驚異와 恐怖가 宗教意識을 具禮化시키는 興材가 된다』면 (第四回二段一-九行)社會的 關係란 것이 엷다고 다시 말하자면 사람과 한번 다 만나본 일이 엷다고 그 □情 그 생각 그 行動을 宗教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 아닌가한다.

둘재로 氏는 社會意識이 시작되고 道德觀念이 설 새에 비로소 宗教가 起源하였다고 한다. 宗教的 行動은 大概가 集團的이다. 그리고 原始的 部族은 大體로 그 部族에 獨特한 部族的 宗教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宗教는 기도를 올리고 犧牲物을 바치고 □謝의 노래를 부르고 북을 울리며 춤을 추어서 宗教的 對象을 崇拜할만한 群象을 要求하며 社會는 그 社會의 秩序와 慣習을 支持하며 □護할만한 宗教를 要求하였다. 特別히 原始宗教에 잇서서 社會連帶思想이 部族民의 全 生活를 支配하고 잇는 새에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祈禱한다는 것은 別로 차저 보기 어려운 現象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宗教經驗이 있다는 사람은 누구나 勿論하고 眞正한 宗教感

情은 世上을 썩나고 무리를 썩나서 寂寞한 곳에서 經驗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原始人은 全然 이와 가튼 個我的 靈感을 맞지 못 하였을가. 그들도 오늘날 사람과 가티 썩드는 무리를 썩나며 어나 썩에는 雜□한 世上을 咀呪하고 고요한 곳을 차저 간 것이 事實이다. 그리고 現今 우리들이 보는 여러 가지 發達된 宗教는 大概가 個人的 卓越한 人格과 思想에 起因한것이다. 사람은 各各 創造的 想像力과 自由스러운 個我的 獨特性을 가지고 社會가 주는 條件과 法則에 알마추라고 하지 안코 自我를 發揮하라고 하며 正義를 위하여서는 社會全體를 對敵하여서 自己를 犧牲하는 것까지도 躊躇치 안는다. 宗教는 社會가 命令하는 것을 그대로 服從한대 잇는 것보다도 참을 위하여서 現實을 否認하며 무리의 嘲笑를 바들지라도 참이 아닌진댄 □成社會 그것을 反抗하는데 잇다고 말하고 쉽다.

마지막으로 氏는 우리에게 宗教意識이 잇은 후에 이러한 情을 表現하기 위하여서 비로소 宗教儀式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對하여서 두 가지 疑問나는 것을 簡單히 적어 두는데 썩이라고 한다. 첫째로 宗教儀式의 目的은 氏의 생각과 가티 宗教意識을 表現하여서 儀式을 行하는 그 사람이나, 그 團體가 主觀的으로 快感을 얻는다든가 實在味가 잇게 된다든가 하는 것도 잇겠지마는 宗教儀式의 根本目的은 그것보다도 客觀的으로 神或은 神들을 崇拜하여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깃브게 하자는 것이 아닌가한다. 푸렛 博士는 그의 名著『宗教意識』主觀的 敬拜와 客觀的 敬拜를 區別하여서 宗教儀式을 우에 말한 이 두 가지가다 重要的 要因이 된다는 것을 指摘하였다.

둘째로 疑心나는것은 儀式이 信念보다 후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信念 先在說을 가라쳐준 사람으로는 뮐教授나 테일러博士을 들어 말할 수 잇겠다. 뮐 氏는 『宗教科學』이란 책 第二卷에 알에와 가튼 말을 하였다. 『超自然的 勢力과 血的 關係가 잇다는 생각과 사람은 이 超自然的 實在에 絕對依□하였다는 信念이 잇기 썩문에 宗教家는 이러한 實在와 交通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여러 가지 宗教的 儀式을 만드러 가지고 神을 崇拜하며 神을 깃브게 하라고 하였다』고(一二七頁)그러나 現代 宗教學에 依하면 信念가 儀式은 매우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잇을 뿐 아니라 어느 편으로 보면 儀式이 먼저 생겼다고 할 수 잇다고 하며, (푸렛-宗教 意識 二五八頁) 特別히 宗教儀式의 社會的 起源을 力說하는 어빙킹이나 애임스와 가튼 學者들은 異口同言으로 宗教儀式의 先行說을 主張하고 잇는 것이다.

이우에 말한 것을 모뉘어 보자면 첫째는 宗教와 □法の 關係에 對한 問題이며, 둘째는 個人과 社會에 對한 問題이오. 셋째는 信念과 儀式에 對한 問題이니 이 세 가지가 宗教의 起源을 論하는데 매우 複雜한 問題이나 여기에

서 더 기피 討論할 餘暇가 없다. 이러한 問題를 研究하는사람은 누구나 勿論 하고 想像的 連□으로 □論을 지을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科學的 事實을 考察하여야 한다는 것을 指摘할뿐이다.